

노사관계 동향

노사분규 동향

- ◆ 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소폭 증가
- 2005년 5월 23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함(표 1 참조).
 - 분규참가자수는 12,832명으로 전년동기의 30,235 명보다 크게 줄었지만 분규발생건수와 근로손실 일수는 각각 39건, 123,236일로 전년동기보다 소폭 증가

〈표 1〉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

(단위: 개소, 명, 일)

	2003. 5. 23	2004. 5. 23	2005. 5. 23
노사분규 발생건수(개소)	79	36	39
분규참가자수(명)	12,796	30,235	12,832
근로손실일수(일)	109,209	104,348	123,236

주: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,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.
자료: 노동부.

노동정책 동향

- ◆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
- 노동부는 4월 28일, 여성고용 확대 및 차별개선을 위

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ffirmative Action)를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(안)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2006년 1월부터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매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보고하게 되며, 여성고용률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여성고용 목표 및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게 됨.
-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.
- 이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고용평등평가센터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설치·운영할 계획임.

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

◆ 노사정, 비정규직 법안관련 교섭 결렬

- 지난 4월 6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노사정간 비정규직 법안 관련 교섭이 결렬됨.
 - 민주노총의 교섭참여를 계기로 노사정간 본격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최종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내 법안처리에 실패
- 경영계, 비정규직 문제의 시장을 통한 해결 주장
 - 경총은 결렬 이후 성명을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흡수를 위한 중요한 통로이며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겨두어야 함을 주장함.
 - 또한 앞으로 경영계는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시정노력을 전개할 것이며, 이를 위해 정규직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안정에 협력해야 함을 촉구함.
- 노동계, 향후 지속적 협상과 함께 차별철폐운동 전개 선언
 - 양대노총은 결렬 이후 위원장단 단식농성을 풀면서, 협상의 평가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원칙과 향후 계획이 담긴 성명을 발표함.
 -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기간제 사용시 사유제한, 동일노동 동일임

금 원칙을 통한 차별해소,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제시함.

- 또한 향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한 협상의 지속적 전개와 함께 6월 중 비정규 권리입법화를 위한 대규모 차별철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힘.

- 그러나 곧 임단협 교섭이 시작되는 데다가 이번 협상에 직접 참가했던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·현직 지도급 인사가 비리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, 개별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는 등 향후 노사정 협상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.

◆ 비정규직 관련 장기분규 사업장 노사정 대립 발생

-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파업 일단락
 - 2005년 3월 17일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중 3인이 4월 30일부터 SK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등 분규가 장기화·격화됨.
 -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울산, 서울 등지의 집회과정에서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및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 발생
 - 5월 27일,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장기파업 조기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,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, 노조인정 등을 포함하는 1차 합의 도출
- 하이닉스-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분규 장기화
 - 도급계약 해지(2004. 12. 31) 이후 원직복직·고용보장 이행 및 원청회사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며 집회, 농성을 반복 중 5월 11일부터 부지회장 등 2인이 무기한 천막 단식농성 돌입
 - ※ 2004년 10월 22일 사내하청 노조설립 후,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진행하자 하청회사에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, 원청은 4개 하청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바 있음.
 - 하이닉스-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지원을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중부권 노동자 대회에서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분규가 장기화·격화됨.
- 경총과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사분규 관련 성명전 전개
 - 경총은 사내하청 노조의 분규를 불법 폭력행위로 규정하면서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완화를 거듭 주장함.
 - 민주노총은 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청주 하이닉스-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와 함께 향후 임단협 일정과 결합된 총력투쟁 계획을 밝힘.

주요노동일지

(2005. 4. 25~5. 22)

년·월·일	노동정책	노사단체	기업 및 노동조합
2005. 4. 26		· 비정규노동법공대위: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권리보장 행동의 날 집회 개최	·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: 단체교섭 불응 7개사 부당노동행위 고소
4. 28			·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: 파업 계속(3. 21~) 중 일시적 업무복귀 결정
5. 1		· 양대노총: 각각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개최	
5. 2	· 한국노동법학회 등: 동아시아 노동문제 국제심포지엄 개최		
5. 9		· 양대노총: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촉구 공동성명 발표	
5. 10		· 경인지역 노사정: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	· 덤프연대: 유가보조, 부당 과적 철회 등 요구하며 운송거부 투쟁(5. 1~)중 현장복귀
5. 12	· 한국노동연구원: '고용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토론회' 개최	· 경기지역 노사정: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	
5. 13		· 한국노총: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관련 입장 발표 · 민주노총: 울산건설플랜트·청주하이닉스 등 비정규 현안관련 기자회견 · 서울지역 노사정: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	· 캐리어(주)노조: 임단협 관련 전면파업(5. 9~)중 잠정합의
5. 17		· 민주노총 울산본부: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승리를 위한 영남권 결의대회 개최	
5. 18		· 민주노총: GS칼텍스 노조파업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	· 울산건설플랜트노조: SK울산공장 정유탑 고공농성(5. 1~) 중 경찰진압
5. 20	· 한국노동연구원: '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' 개최	·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: 중부권 노동자 대회 개최	